美 기업인 대상 전북 투자유치 유인

도, 텍사스주 소재 바이오 기업 등 대상 비즈니스데이 개최 투자 강점 집중 홍보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와 협약도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캐롤턴 컨퍼런스 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열린 전북 비즈니스데이에 김관영 도지사와 텍사스주 상·하원의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텍사스 주 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투자설명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미국 텍사스주 소재 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데이를 열고 전북의 전략산업 등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유인했다.

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등 미국 출장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캐롤턴 컨퍼런스 홀(Carrollton Conference Center)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전북 비즈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텍사스주 상·하원의원을 비롯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댈러스 영사관, 텍사스 주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라북도의 산업 생태계와 투자 환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소개가 이뤄졌다.

이날 비즈니스데이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텍사스주 정·재계 인사들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전북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망, 바이오와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전라북도 투자혜택 등에 대한 상세하게 소개하는 소통의 시간이 펼쳐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제도 혁신을 꾀해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도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손색이 없도록 더욱 알차게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전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앞으로도 텍사스주 경제단체는 물론 기업들과 활발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전라북도에서 투자기업과 함께 성공스토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 출장단은 이에 앞서 10일(현지시간) 라이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손 에드워드 LA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81년 창립해 전 세계 67개국 146개 지회가 설립돼 있으며 7천여 재외동포 최고경영자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여명이 활동하는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로 LA지회는 회원수 470여명으로 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 11일 김 지사는 At Home, 피자헛 등을 비롯한 미국 주요 대기업 본사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금융·상업중심지인 플레이노시 존 먼스(John B. Muns) 시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역간 상호 교류와 경제통상협력 구축을 위해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이낙연 신당 당명 '새로운 미래'

〈가칭〉

16일 창당발기인대회… 정식 당명은 온라인 공모 거쳐 최종 결정

"극한의 진영대결 뛰어넘어 국가 과제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정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신당 당명을 '새로운미래(가칭)'으로 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극한의 진영대결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국가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당의 가칭 당명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기인 신청을 받으며 국민 당명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당 대회와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새로운미래는 거대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재영입과 정책 발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탈당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민주당의 개혁 여지를 남겨 놓고 있었고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지난달 말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만 동어반복,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신당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대회… 창준위 출범

〈가칭〉

'원칙과상식' 3명·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 주축

제3지대 이낙연·이준석·금태섭 등 '키맨' 들도 참석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이 14일 창당발기인대회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출범식을 열었다.

미래대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 3명과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가 주축이 된 신당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기인대회와 창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국민의힘 의원, 발기인, 초청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도 함께했다.

다른 제3지대 세력들도 직접 찾아와 축하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 측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 측,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신당명을 '미래대연합', 약칭은 '미래연합'으로 의결하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을 공동 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갈등을 넘어 함께 하는 나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창당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민주 총선 예비후보 '적격' 논란 확산

'뇌물' 노웅래 · '미투' 정봉주 등 적격 명단 포함

검증 공정성 문제제기… 친명 · 비명 반발 모두 사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10차에 걸친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판정 번복이나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 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확산됐다.

전날(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미투 파문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포함됐다.

현역 의원 뿐 아니다. 검증 결과 발표마다 잡음이 일어왔다.

1차 발표 때에는 폭행과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적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서 전 시장은 2005년 술자리에서 후배와 시비가 붙어 술병으로 후배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199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기도 했다.

7차 발표 때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용주 전 의원도 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편파 검증 논란도 일었다. 지난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무소속 출마했던 문의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이 적격 판정을 받고,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과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각각 한준호 전 홍보위원장과 김병기 사무부총장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정은의 수령체계'를 너무도 빨리 닮아가는 것 같아 섬뜩하고 분노스럽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는 탈당한 원칙과상식은 "검증위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검증 과정에서 친명과 비명의 반발을 모두 사버렸다.

이러한 논란 속 민주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관위원장을 맡게 된 임혁백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22대 총선을 중대선거로 규정하며 "검찰 통치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군산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

민주 김의겸 의원, 총선 군산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군산)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이날 군산시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며 "모든 순간 주저하지 않고 맨 앞에 섰던 결기를 담아 출사표를 낸다"고 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변화하는 군산, 설레는 군산, 희망을 함께 그리겠다"며 "손잡고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군산시민과 뜨겁게 호흡하며 달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신문 기자를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TF 등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에 맞서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이정섭 차장검사 등 비리를 밝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특별취재반

정읍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12일 제290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사문화제를 국가적 문화축제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도형 의원은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ESG에 관심과 정읍시청부터 모범을 보이자고 했으며,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 수성동의 고질적인 주차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정 보고가 있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있으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

"농축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위원들은 남원시 집행부에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남원시 농축산업의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남원사랑상품권의 농촌 현실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불편 해소를 주문하고, 김한수 부위원장은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소태수 위원은 농촌중심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지홍 위원은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활성화와 청년마루 활용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염봉섭 위원은 소상공인지원과 관련해 시중금리의 상승에 맞는 금리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기열 위원은, 양묘장 신축,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마련을 당부했으며, 한명숙 위원은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을 위한 녹지 조성에 만전을 당부하고, 이숙자 위원은 춘향제와 드론제전 등에서의 농특산물 판매 실적과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추진 실적을 청취하고 가축 질병 긴급상황 대응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것을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람 본성 쉽게 변하지 않아"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탈당' 이낙연 전 총리 겨냥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가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탈당 후 신당 창당에 나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규탄했다.

30년 민주당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는 정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에서도 각자 정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독재에 맞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죽어만 가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당이 똘똘 뭉쳐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협오 △반사이익 △요란 △잡음 △꼼수 △구태정치 반복 등의 키워드를 강조하며, "지금의 이낙연 전 대표가 입은 옷과 제법 어울리는 말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우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잡음과 요란으로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과거 이낙연 전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독재자 전두환을 위대한 영도자로 일컫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의 행적도 모호하다"고 꼬집은 뒤,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결코 고쳐 쓸 수 없는 게 사람"이라며 이 전 대표를 맹폭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게 곧 다수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분탕질이 당내 단합은 물론, 윤석열 정권 아래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독재를 연장해 주는 행태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이번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라며 "지금이라도 당내 분란을 멈추고, (탈당) 판단이 섰다면 조용히 떠나가는 게 당과 당원에 대한 나아가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끝으로 '인간대접을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문제는 의리가 실종된 것"이라며 "이후로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 차원의 강하고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완주 토종생강 보존·활성화 방안 모색

권요안 도의원 등, 생강굴 보존주택 조성 부지 현장 점검 나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신성리 일원에 조성된 생강굴 보존주택과 홍보·체험관 조성 부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전북도와 완주군 관계자, 보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으며, 신성리 일원은 구들식 생강굴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39곳의 생강굴이 분포돼 있다.

또한, 전통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완주 토종 생강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19억 원을 투자해 홍보·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조성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완주 토종생강의 보존·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업생산, 임대차 등 기존의 선정기준이 아닌 농업유산을 고려한 경관농업직불제(유산직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에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토종생강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농업유산직불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